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올가을, 가요계 '거물'들이 몰려온다

서태지·싸이·윤상 등 앞다퉀 컴백

신곡 발표 소식에 음악팬들 '두근'

올해 가을 음악팬들은 음원 사이트의 '새 앨범' 코너에서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것 같다. 이렇듯 들어도 금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뮤지션들의 수년만의 신작이 줄줄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는 '문화대통령' 서태지부터 7년만에 앨범 발매를 예고한 싱어송라이터 유희열까지 가요계 '거물'들의 승부가 잇달아 펼쳐질 전망이다.

하반기 가요계 최대 이슈는 단연 서태지의 컴백이다. 서태지는 다음 달 발매 예정인 9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09년 발표한 8집 '서태지 8th 아토모스' 이후 5년만이다.

서태지는 앨범 발매에 앞서 10월9일에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국민MC' 유재석과 토크 시간을 갖는다. 이례적인 토크쇼 출연으로 컴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셈이다. 그는 이어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컴백 콘서트 '크리스탈로윈'을 개최한다.

'월드 스타' 싸이 역시 올가을 신곡 '대디'(Daddy)로 컴백할 예정이다. 당초 노래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뮤직비디오 등 작업의 완성도를 위해 일정을 다소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의 래퍼 스눅독과 함께 부른 '행오버'(HANGOVER)가 정통 힙합을 추구했다면 이번 '대디'는 신나는 댄스곡이다. 정우성과 씨엘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최근 웰메이드예담에 새 동지를 들고 10월 말 새 앨범 발표를 목표로 작업중인 MC몽(본명 신동현·35)의 컴백도 관심사다.

그의 활동 재개는 2010년 고의 발지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며 활동을 중단한 지 4년 만이다. 앨범으로는 2009년 5집 '휴머니얼'(Humanimal)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아이 러브 유 오 맨류', '아이스크림', '서커스', '너에게 쓰는 편지' 등 발표곡마다 음원 차트를 휩쓸고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했던 그가 다시 재가득한 면모를 보여줄지 관심을 모은다.

김수성이 풍부해지는 계절 가을을 맞아 가요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들도 오랜 음악적 침묵을 깨고 섬세한 감성을 뽐낸다.

먼저 김동률이 6집 '동행'을 오는 10월1일 발표한다. 앨범은 그가 3년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다.

타이틀곡 '그게 나야'를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된 앨범에는 이상순, 존박이 참여했다. 소속사는 앨범 소개에서 "수록곡 노랫말은 시와 같다. 김동률은 유행어나 속어는 배제한 채 가사의 운율을 맞추고 노래마다 명확한 흐름과 완결성을 가진 이

서태지 >

< 싸이

윤상 >



야기를 썼다"며 그의 작가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싱어송라이터 윤상은 최근 11월께 새 정규 앨범 발표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디지털 싱글 '날 위로 하러거든'을 선보였는데, 이는 2009년 정규 6집 '그댄 물려던 일들' 이후 5년만의 신곡이었다.

윤상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일렉트로니카 장르의 노래 '날 위로하러거든'의 대부분 작업을 직접 해내며 음악 내공을 다스림 보여줬다.

또 tvN의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 3탄 '꽃보다 청춘'에 출연해 매력을 뽐낸 그는 조만간 SBS 토크 프로그램 '힐링캠프'에도 출연해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동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쳐온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도 7년여 만에 뮤지션으로 돌아온다. 현재 '도이' 정규 7집의 마무리 작업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앨범은 이르면 올가을 발표 예정이다.

유희열은 2007년 토이 6집 '땡큐' 이후 방송 활동에 집중했다.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tvN 'SNL 코리아', '꽃보다 청춘'에 출연하며 '감성 변태'라는 수식어와 함께 예능계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했다.

'도희야' 배우나, 금계백화영화제 여우주연상

(중국 최고의 영화제)



배우 배우나(35)가 '도희야'로 중국 금계백화영화제에서 국제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배우나씨는 지난 26일 밤 중국에서 열린 제23회 금계백화영화제 국제(국제부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이 영화의 제작사 나우필름이 27일 밝혔다.

금계백화영화제는 홍콩의 '금마장', 대만의 '금마장'과 함께 중화권 3대 영화제로 꼽히며 중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다. 매년 '중국영화인협회'가 구성한 심사위원과 대중 영화잡지 '대중전영'의 독자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는 의붓아버지(송새벽 분)에게 학대받으며 자란 소녀 도희(김새론)와 경찰대를 나온 엘리트지만 시골 파출소장으로 좌천된 영남(배두나)이 서로 상처를 보듬는 이야기다.

지난 5월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인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배우나씨는 자예산으로 기획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고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연기를 펼쳤다. /연합뉴스

광주MBC, 창사 50주년 맞아 특집 프로그램 마련

지역발전·청소년·여성 등 다양한 주제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최영준)가 오는 10월8일 창사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먼저 10월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7시10분에 5주 연속 방송하는 '희망대토론'(연출 김휘)에서는 변화와 상상의 시대에 광·전남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 미래세대 역할, 지역과 이념, 정당 간의 갈등을 넘는 대통합 등 다양한 각도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10월4일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청소년 진로드림콘서트 꿈틀'(연출 김규빈)은 열정과 사랑, 꿈, 끼 등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연이다. 개그맨 정종철, 쓰리닷컴 송승환 대표, 주철환 전 PD, 대학생 CEO 노태근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 강연은 10월8일 오후 6~8시 라디오(표준FM 93.9MHz)를 통해 방송된다.

희망리레이강연 '정춘, 희망을 품다'(사진)는 10월7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에는 김경희 MBC PD, 배우 박철민, 이정현 의원, 바가지머리 손석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한다. 방송은 10월8일 오후 11시10분이다. /김경인지자kk@kwangju.co.kr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9일(음 9월 6일 癸卯)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결" ☎010-9790-8237